

임실엔치즈클러스터, 역대급 매출 달성

전년 대비 19% 성장 2025년 89억원 매출 진기록... 통합물류 혁신모델 우뚝

대한민국 치즈의 원조인 임실N치즈의 생산과 유통과 판매 전 과정을 컨트롤하는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 사업단(단장 최낙진)이 지난 해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며, 통합물류의 혁신모델로 우뚝 섰다.

군에 따르면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사업단은 2025년 총 매출 89억원을 올리며, 전년 대비 19%의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뤘다.

최근 6년간 매출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3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2021년 44억원, 2022년 54억원, 2023년 63억원, 2024년 75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한 가운데 지난 해에는 89억원의 역대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약 2.5배에 달하는 매출신장을 이뤘다.

이번 성과는 임실N치즈브랜드 가치 상승과 함께 임실엔치즈클러스터 사업단이 구축해 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물류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 덕분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사업단은 단순 물류 수평을 넘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연계하는 임실치즈산업의 핵심 유통·컨트론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해왔다.

임실지역 유가공업체들의 유제품 유통을 일원화해 배송 효율 극대화, 재고관리 고도화, 물류비 절감을 동시에



대한민국 치즈의 원조인 임실N치즈의 생산과 유통과 판매 전 과정을 컨트롤하는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 사업단이 지난 해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며, 통합물류의 혁신모델로 우뚝 섰다.

실행했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제조에 집중하고 소비자는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

2013년 최초 설립이후 현재까지 오수 휴게소(상, 하) 및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전주 임실N치즈카페 판매장, 봉어섬을 비롯한 임실엔치즈하우스 등 총 9개소의 유통·판매 거점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다져왔다.

또한 사업단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임실치즈엔식품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위생·품질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등 유통단계에서도 품질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며 임실N치즈의 신선도와 품질 경쟁력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

다. 임실N치즈산업은 올해에도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숙성치즈 고도화와 저지중 육성을 통한 프리미엄 유제품 개발등 고부가가치 전략을 본격 추진, 임실N치즈클러스터 사업단을 중심으로 한 유통 경쟁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매출성장은 임실N치즈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 온 생산자들과 더불어, 현장에서 통합 물류 유통 혁신을 책임져 온 임실엔치즈클러스터 사업단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사업단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임실치즈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소비자들의 사랑에 성가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전홍영 기자

29일 모노레일 소송 상고심

남원시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전향적 판단 기대

남원시와 남원시 민간개발사업 대주단과의 모노레일 소송에서 2심에서 피고 항소가 기각된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

남원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시행사가 벌린 돈 408억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대주단이 제기한 남원시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이번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 일각에서는 당초 1월 22일이었던 심리 불속행기각 결정 기한을 경과해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힌 것을 두고 원심판결과 달리 시가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2020년 시행사가 시에 불리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모노레일 시설을 준

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사는 2022년 8월부터 16개월간 모노레일을 운행한 결과, 수익성이 당초 예측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자 사업 중단을 시에 일방적으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후 실시협약 제19조를 근거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의회 동의가 유효하고, 해당 사업의 구조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가 남원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선례를 남기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본 판결이 지자체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67회 전국 유소년 소프트테니스 대회 순창서 개최

스포츠 산업도시 순창군이 2026년 새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의 첫 포문을 힘차게 열었다.

이달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6일간, 순창공설운동장 실내 다목적구장에서 제67회 전국 유소년 소프트테니스 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한국여자소프트테니스연맹(회장 배연숙)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박경만)가 주관하며,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전국 단위의 대표적인 유소년 소프트테니스 대회다.

대회는 2023년 순창군과 한국여자소프트테니스연맹이 체결한 상호 스포츠친화 유치 협약에 따라 영구적으로 순창군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소년 소프트테니스 종목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특히 순창군은 실내 체육 인프라 확충에 적극 투자해 왔으며, 이번 대회 역시 눈과 비가 잦은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다목적구장에서 개최됨으로써 참가 선수들과 가족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역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구 유입을 통해 숙박·음식·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신·편입생 모집

남원시 계약학과

남원시와 전북대학교는 지역 특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6학년도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남원시 계약학과)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지역산업학과는 남원시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근로자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화장품부터 산업과 목철공예산



업을 전공으로 지역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며, 2026학년도에는 신입생 40명과 편입생을 모집하며, 전공 구분 없이 총 모집인원 내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은 2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모집은 1월 5일부터 1월 23일까지, 2차 모집은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로, 원서 접수는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사무실에서 가능하며 방문 제출과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와 세부 사항은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남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원광대 RISE 사업단, 식용 곤충 활용 레시피 공모전

남원시(시장 최경식)와 원광대학교 RISE(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단은 식용 곤충에 대한 인식 전환과 관심 제고를 위해 식용 곤충 활용 레시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식용 곤충 요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는 대상 1명(150만 원),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1명(70만 원), 장려상 1명(50만 원)을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1월 12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이며, 참가 신청 방법은 원광대 RISE 사업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창의성 및 독창성, 실현 가능성, 서류 충실도, 제품화 및 상용화 전략, 기술적 완성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태이친환경영농조합법인, 제주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한다

순창군 태이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 2026~2027년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선정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한 우수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이룬 성과다. 태이친환경은 △서류사 △현지실사 △영양교사가 참

여한 밥맛 품평회 등 3단계에 걸친 엄격한 평가 절차를 모두 통과하며 최종 3개 공급업체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태이친환경은 2026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2년간, 제주도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백미, 현미 등 친환경 쌀 4종 약 500톤을 공급하게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농기센터,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생 모집

임실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소영)가 농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수 농업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형 건설기계(3톤 미만 굴착기·지게차·스키로더) 면허취득 교육생을 모집한다.

해당 교육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50명을 선발해 교육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론교육 6시간과 실기교육 6시간 등 총 12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운전면허증 사본·굴착기·스키로더 2종, 지게차2종)를 구비 후,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임실군 신평면 대리로 154-5)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임실=전홍영 기자

임실군, 소득 기준 관계없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임실군은 지난해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 여건을 고려해 치매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치매 환자는 진료비와 약제비 등 치료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환자의 조기치료를 유도하여 증상 악화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소득 기준 초과로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치매 환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임실군은 앞으로도 치매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임실=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향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킁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